



영광 안마도 무법자 ‘사슴 대란’

귀엽고 착한 동물 사슴 왜 주민에게 원흉 됐나

‘귀엽고 착한 동물’로 인식돼 온 사슴이 영광군 한 섬마을 주민에게 원흉이 되고 있다.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주민들은 수십 년간 수백 마리의 사슴때가 농작물과 산림을 훼손하고, 심지어 조상의 묘까지 파헤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잡다 못한 주민들은 ‘안마도 사슴피해 대책위원회’ (대책위)를 구성하고 최근 일부 사슴 소유자와 사슴을 포획하기로 합의했지만, 해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동안 온갖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무용지물이었던데다, 사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갈수록 늘고 사슴도 워낙 빠르고 숫자까지 많아 포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영광군과 낙월면 안마도 주민 등에 따르면 안마도 주민들은 지난 30여년 간 사슴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1985년 마을 주민 4명이 사슴뽕·고기 생산 목적으로 꽃사슴 5마리·엘크 10마리를 방목한 이래 지속적인 농작물 피해와 산림훼손을 입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금의 안마도에 있는 사슴은 2개 종이 교배해 태어난

주민 4명이 방목한 15마리 30여년만에 600마리로 증가 농작물·산림 훼손에 묘 파헤쳐 사유 재산 맘대로 처리 못하고 소유자도 불명확해 골머리 영광군 “총기 사용 포획 예정”

잡종이다. 주민들은 사슴이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 잡고 싶어도 사슴이 워낙 재빠르게 산으로 도망가는데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사슴을 뒤쫓아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총기를 사용해 포획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련법에서 사슴을 가축으로 분류해 총포에 의한 포획도 금지하고 있다. 고된 끝에 안마도 주민들이 생각해 낸 방법은 사슴 접근을 막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일단 대부분의 밭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해 사슴을 어느 정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울타리가 안마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힘이 센 사슴은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지도 않고, 밭에서 먹이를 구하기 여의치 않자 논으로 들어가 벼까지 뜯어먹는 악습환도 되풀이 되고 있다. 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슴들이 땅속 식물뿌리를 먹기 위해 묘지까지 파헤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 A씨는 “안마도는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웬만한 농산물은 직접 길러 먹는데 사슴이 다 뜯어먹어 사람이 먹을 채소조차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울타리를 설치해도 힘이 센 일부 사슴이 (울타리를) 뚫고 논이나 밭에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영광군은 안마도 사슴의 숫자를 600여마리로 추정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최소 200마리부터 최대 700마리 이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소유권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어떤 사슴이 누구 소유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영광군이 지난해 4월 사슴소유자 2명에게 가축사육업 등록 미이행으로 과태료(8만원)를 부과한 이후 오히려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2명 더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목된 사슴에게 소유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영광군 고문변호사 2명의 의견도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로 엇갈리고 있다.

영광군은 일단 4명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모두에게 축산법,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안마도 사슴은 일부 주민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가족으로 보고 있다”면서 “2년 내에 사슴을 잡지 못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안마도 사슴을 유해동물로 지정, 총포를 사용해 포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원장 B씨는 “지난해 ‘안마도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사슴 포획을 막는다’는 소문이 퍼져 섬 분위기가 뒤숭숭했다”며 “우리(주민들)는 다 필요 없으니, 하루라도 빨리 섬에서 사슴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여기는 금연공원입니다” 3일 오후 광주시 서구 건강증진과 직원들이 상무시민공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상무시민공원과 5·18기념공원에서 흡연할 경우 2019년 3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비오는 날 안전장비 없이 점점 증 감전사고...작업자 40% 책임

광주지법 “예방 소홀”

비가 내리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점검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에게도 40%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기산업기사 자격 보유자인 A씨는 2015년 9월 장성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 전기설비 안전 관리자로 일하면서 전기안전공사 직원들과 함께 이 공장 내 각종 전기설비가 설치된 수전실에서 전기검사를 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기 공급이

끊이지 않아 수전실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상태였다.

A씨는 공사 직원들의 요청으로 절연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전실로 들어갔다가 개폐기 부근에서 감전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전기설비 안전검사를 하면서 안전장비를 갖추고 기상조건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으로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사

소속 직원들이 이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공사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30년간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해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 예방을 소홀히 했다”며 “사고에 대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탁성 금품거래 혐의’ 서대석 서구청장 검찰 송치

서 청장 “허위·왜곡됐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청탁성 금품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서 청장을 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 승진,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등 청탁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 현금을 각각 받은 혐의다.

서 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윤장현 시장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서 청장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졌다.

서 청장의 비리의혹을 주장한 조모(50)씨는 자신이 돈을 전달했다며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경찰은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조씨도 서 청장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에 조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 청장은 “조씨가 허위·왜곡된 주장을 펼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조씨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발주 사업관련 금품 수수는 고문자격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 성격의 돈이며,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영암서 고교 행정실장이 여교감 폭행

이사장 자녀들간 갈등인 듯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60대 행정실장이 50대 여성 교감을 폭행했다.

3일 영암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영암의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 A(60)씨가 교감 B(여·57)씨를 폭행했다.

A 행정실장의 폭행으로 얼굴에 상처를 입은 B교감은 구급차에 실려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행정실장과 교감은 해당 학교 이사장의 자녀들로 남매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

술자리서 직장동료 흥기로 찢른 60대 체포

전북 정읍경찰은 “직장동료를 흥기로 찢른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정읍시 수성동 자택에서 직장동료 B(52)씨의 가슴과 배를 흥기로 수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칼에 맞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

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해 아내와 사별했는데 직장동료가 술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 화가에 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함께 죽자더니...홀로 살아 망자 물건 훔친 30대 교도소행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홀로 살아 남은 뒤 망자의 물건을 훔친 30대가 교도소행.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에 따르면 자살방조와 절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31)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B(31)씨와 함께 저수지에 투신한 뒤 혼자 헤엄쳐 나와 B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났다

는 것. ○B씨는 결국 의사했는데, 재판부는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자신도 처지를 비관해 동반 자살을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